

얼마전에 한아버님이 자녀문제로 찾아오셨다. 아이가 사춘기때부터 하기 시작 한 마약을 10여년이 지난 지금에야 아시곤 몹시 충격이 심하셔서 찾아오셨다. 물어 물어 마약의 분야에 알만한 사람은 다찾아다니셔서 알아보시곤 맨 나중에 나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면 아이를 도울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상세히 물으셨다. 그리고는 아이가 이렇게 되니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것 같으시다며 차분히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시기 시작했다. 아버지로써, 한인생으로서 헛살아 온것같은 심경이 든다며 자식을 그렇게 만든 자신에 대해 정말 인생자체가 무상하고 허무한 마음에 새벽동이 떠오르는것조차 모른채 그렇게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시단다. 늘상 이러한 상담을 할때 상대가 당하는 심경에 마음이 늘 안타깝고 안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번의 경우는 또 다른것같다. 자식의 문제로 인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진지하고 진실한 마음앞에 내자신도 숙연해지는 마음이다. 나는 내가 드릴수 있는 정보와 도울수 있는 방법들을 다 말씀을 드리고는 다음에 또 만나기를 약속드리고 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여지껏 교회를 다닐생각도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을 믿는것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도 없으셨던 분이 자식의 위기상황 앞에 뜬눈으로 밤을 새우며 깊은 한숨속에서 맞이 하는 새벽이 하루이틀... 이렇게 지내면서 문득 어느새벽, “누구한테도 말할수 없는 이렇게 답답한 심경을 교회에라도 가서 하나님앞에 다 쏟아붓고 라도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드셨단다. 그러던날 아들에게 이 아버지는 “아버지가 정말 너한테 미안하다. 내가 널 이렇게 만든것같다. 내가 무얼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라는 아버지의 깊고깊은 가슴 밑바닥에서 부터 나오는 진심의 고백을 하게되었다. 이 아버지는 아무 의도도 그리고 무엇을 하자는 것도 또한 아들에게 무엇을 바라는것도 아닌 그냥 아버지의 깊은 진심을 그냥 아들앞에 토해놓은것이다. 그런데 얼마후부터 아들의 태도가 달라지더라. 전혀 그러지 않던 아들이 아버지의 안색을 살피고 아버지를 염려하는 말들을 하며 그리고는 자신이 마약을 끊기위해 아버지가 원하는 기관에 가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치료를 받겠단다. 바로 치료의 시작이 시작된것이다. 심각한 마약복용자들을 상담하면서 내가 가장 힘든것은 본인이 치료를 받고자하는 그 결심을 하게 하는 그 과정인것이다.

이과정에서 나는 상대를 결단하게 하는데 많이 실패했었고, 혹 그 결단을 이루어낸다고 해도 거기 까지 겪는 과정과 수고 그리고 시간이 상당히 걸리곤 했었다. 그래서 나는, 당사자가 치유기관에 가겠다고 결단만하면 벌써 치료는 50%이상 이루어 진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기뻐했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진심의 고백의 한마디가 아들의 결단을 만들어낸것이다. 나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기도다”라는 확신이 들었다. 기도는 사람을 가장 인간적이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힘이 있는것이다. 때로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가 문제가 있어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하고 나서는 자녀에게 “네 속에 악한것이 있어서”네가 교회를 안가서…이렇게 해야한다 저렇게 해야한다” 등등의 설교, 정죄등으로 자녀에게 화살을 돌리는것으로 인해 자녀가 더 분노하고 그래서 문제가 더악화되는 경우들이 적지않았다. 그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난 이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오면서 살아있는 기도와 죽은 기도의 차이를 다시한번

확신하게 되었다. 살아있는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가슴과 양심으로 하는 기도… 그래서 가장 인간적이고 양심적으로 말할수 있고 행동하게 되는것으로 인해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움직이는 놀라운 생명력과 힘이 있는 것이 라는 것을 말이다.

제목 ---죽은 기도와 산 기도

혹 고치실것 있으면 제게 먼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